

전 세계 500만부 이상 판매 베스트 셀러 원작!

# 기적 잡화점의 나미야

The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원작 히가시노 게이고 감독 히로키 류이치

2018.02  
COMING SOON

namiya-movie  
©2018 히가시노 게이고, 히로키 류이치

주요 (주)에이원엔터테인먼트

대학생이  
추천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걸작선 소개



# 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최근 일본에서 영화로도 개봉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다. 기존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과는 다르다.

기존의 소설이 추리와 미스터리를 주로 다뤘다면, 이 소설은 살인 사건도, 형사도, 범죄자도 없는 사회의 루저들을 위한 ‘감동 추리 소설’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읽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이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  
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나리아 집화점의 기적' 중에서.

## 2. 용의자 X의 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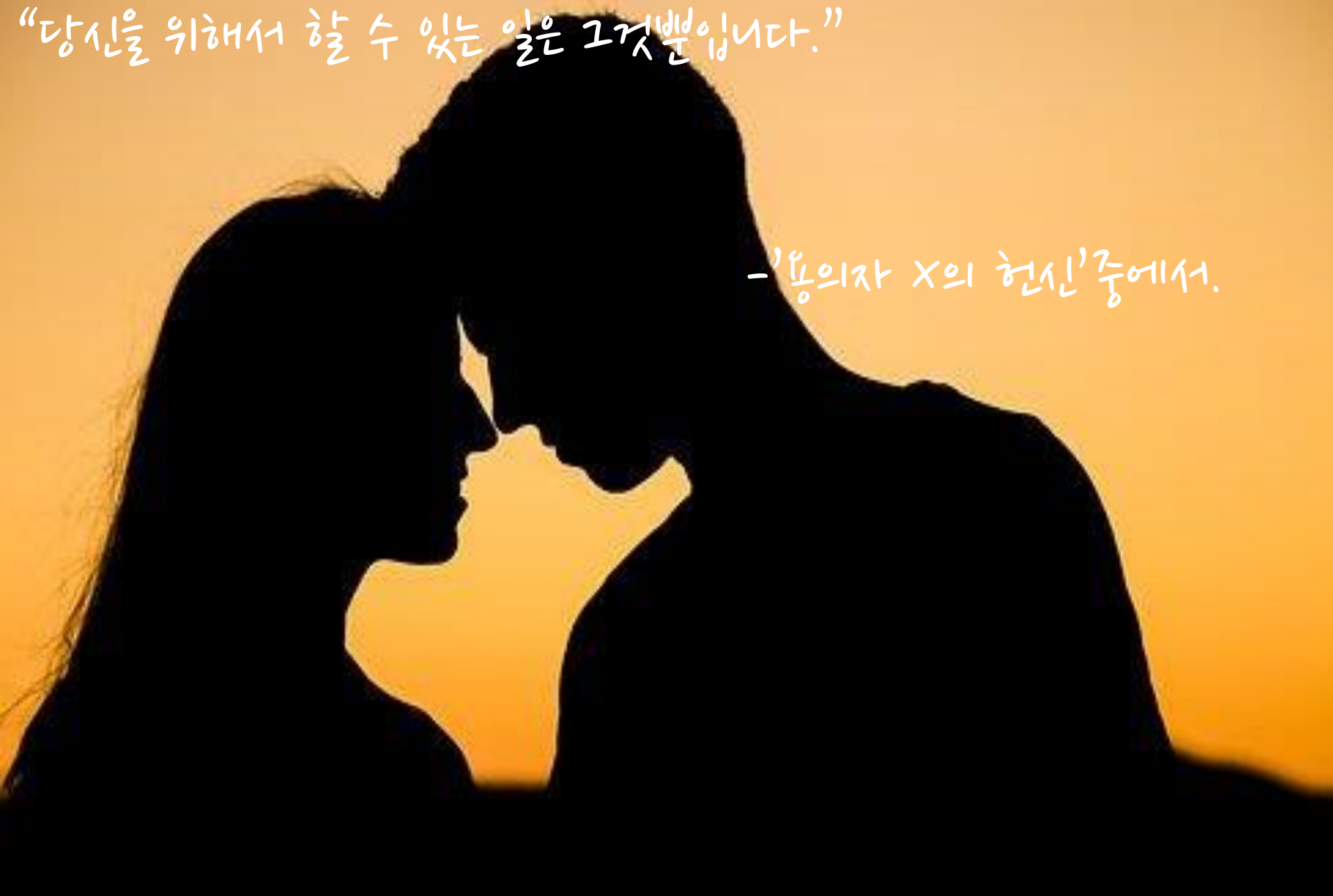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일본에서 영화화로 흥행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되었던 '용의자 X의 헌신'이다.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잡은 것으로 유명한 이 소설은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의 색깔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물리학자 유가와와 형사 구사나기가 풀어나가는 사건은 작품에서 눈을 떼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되는 **충격적인 반전**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여운을 남겨줄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 '용의자 X의 헌신' 중에서.



# 3.가면산장 살인사건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내가 읽어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중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주었던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다.

약혼녀의 의문의 죽음 이를 둘러싼 가족들끼리의 다툼, 강도의 침입 혼란 와중에 발생한 살인사건까지.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처럼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트릭을 통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을 보여주는 결말까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재미있게 본 사람이라면 강력 추천한다.

“끝이 아니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 '가면 산장 살인사건' 중에서.





A close-up photograph of a man in a dark suit, white shirt, and patterned tie. He is adjusting his tie with his right hand. The lighting is dramatic, with strong highlights and shadows.

# 4.신참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주인공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신참자'이다. 이 책은 가가형사 시리즈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러 단편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의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살인자인가?가 아닌 사건을 둘러싼 가족과 동네 인물들의 사연, 그리고 그 사연의 따뜻함을 다룬 소설이다.

오로지 사건만을 해결하는 추리소설에 질린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소설이다.



“하지만 형사가 하는 일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건 때문에 마음  
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도 형사의 역할입니다



- '신참자' 중에서.

